지방자치 **L6**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metr⊕



거대인형 옥단이 공연장면

/뉴시스

목포의 역사 중심지서 펼쳐지는 문화축제

짚 공예, 천연 염색 등 참여 관광객 대상 문화답사 진행

전남 목포시 원도심 골목길 사람들 의 삶을 소재로 한 작은 축제가 열린 다. 이 지역 주민들도 직접 참여한다.

목포문화연대에따르면, 9일 목원동 옛 신안군청 뒷골목 일대에서 '옥단이 골목길 들썩들썩' 축제가 펼쳐진다.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 '골목길 사람들, 북교골'과 함께하는 축제는 '빵빵레 공연'이다. 장구와 북, 가야금 과 칼림바, 북교초등학생들의 벨리댄 스와 바이올린, 전문문화 예술인들의 부토춤, 자전거 줄타기 공연 등이 다채 롭게 펼쳐진다.

전시회 프로그램인 '훨훨나는 옥단 이 문화예술 한바퀴'는 골목길 사람들 의 추억 이야기 아카이브, 달성동 할머 니들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림 전, 옛날 목원동 사진전으로 이뤄진다.

또 80세 이상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 기 시 벽화, 극작가 차범석 생가 조각 전, 목원동 일대 풍경과 삶의 이야기 수 묵화전, 천연 염색전 등이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짚 공예와 염 색, 아트마켓 등이 마련된다.

'골목길 사람들의 품앗이 이야기'에 서는 골목길 사람들이 대문을 하루 동 안 연다. 개방된 마당에는 집주인이 음 식 나눔(오전 10시~오후 3시)과 함께 착한가게 등을 차린다.

또 '북교 고을 가치 알기'에서는 골 목길 해설사와 공동으로 시민과 관광 객들을 대상으로 문화답사를 한다.

축제가 열리는 유달산 자락의 목원 동 골목길은 목포의 역사와 문화가 살 아 숨쉬는 심장이다. 목포인들의 '정신 세계 1번지'로 통한다.

전국적으로도 독특한 근대 문화예 술의 산실인 무안감리, 소설가 박화성 생가터, 차범석 생가, 법정스님과 시인 고은이 만난 정광 정혜원, 목포애국청 년의 활동지인 목포청년회관 등 문화 적 자원이 즐비하다.

가수 이난영과 문학인 박화성・김우 진·김현·김진섭, 한국화가 남농(南農) 허건 등 문화예술인이 활동한 예향 목 포의 뿌리이기도 하다.

이곳 주민들은 목포의 자존심과 정 체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4월 '골목길 사람들, 북교골'이란 단체를 만들었고, 그 출발로 이번 축제를 준비 /목포(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봉선동 집값 ↓… 광주 대치동 옛말

포스코더샵 7억서 5억으로 급락 쌍용스윗닷홈 최고 6억원 올라 "반등 여지 충분" vs "더 내려갈 것"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남구 봉 선동 아파트 가격이 2년 새 급등락했다. 봉선동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포스코 더샵 84m²는 1년 만에 3억원이 올랐다 가 다시 1년 만에 2억원이 떨어졌다.

7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 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 스코더샵 84m²는 2017년 9월 4억1000 만~4억27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2018년 9월 6억7500만~7억3700만원 까지 올랐다. 1년 만에 최고 3억2700만 원이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 7~9월 5억2000만~5 억8000만원으로 급락했다.

1년 만에 가장 많게는 2억1700만원

이 빠진 셈이다.

쌍용스윗닷홈 155㎡는 2017년 9~ 10월8억6000만~8억7500만원에거래 됐던 것이 2018년 10월 13억~14억 6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1년 만에 최고 6억원가량이 올랐다. 하지만 올해 7월 12억5000만원으로 다시 1년 만에 2억원 이상 떨어졌다.

아파트 거래량은 포스코더샵 84m² 는 2017년 43건, 2018년 19건, 올해 들 어 9월까지 7건으로 줄었다.

건, 2018년 5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는 단 1건에 불과 했다.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제 거되는 과정에서 거래 절벽이라는 말 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 고 있다.

남구 모 공인중개사는 "광주에서 부 자 동네라는 상징성이 있는 봉선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 았고 여전히 명문 학원이 많아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학부모들이 이 곳을 선호하고 있다"며 "요즘 아파트 거래는 드물지만 1년 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또다른남구공인중개사는 "최근들 어 학군과 학원 등 봉선동의 교육 환경 쌍용스윗닷홈 155m²는 2017년 11 과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 히 앞서는 것이 아니라서 '광주의 대치 동'이라는 말도 옛말이다"며 " 광주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아 서 15-20년 가량 된 봉선동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없어 가격은 더 내 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순천시, 시민 밀착 '생활SOC 사업' 펼친다

순천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2022년까지 시민 중심 건물 준공

순천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순천시 오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순천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 로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생활 인프라 개 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20억 원(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생활SOC복합화 사 업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공간 의 효율성을 기하고 동천과 국가정원 등 주변의 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시 민중심의 복합건물을 2022년까지 준 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리모 델링 사업 등 4개 유형 8건에 대해 총 92억 원(국비 36억 원 확보)을 투입하여 생활SOC 단일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라고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사진**)은 "이번 생활S 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 한문화 · 체육활동을보장하고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함 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전남)=차정준 기자

여수시, '환경오염물 불법배출' 감시원 선발

여수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 질의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감시 원 3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민간감시원은 여수국가산단과 건설 현장에서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불법 소각, 공사장 트럭 덮개 미설치 등을 순찰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 경·조정이행사항을점검하고,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매연 단속도 벌인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여수시에 주소

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다. 순찰활 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신체가 건강 해야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산업체 은 퇴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선 선 발한다. 감시원은 이달부터 12월 말까 지주5일8시간근무하며, 보수는 급식 비 포함 한 달 평균 200만 원 수준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4일부 터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챙겨 여수시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여수(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완도군, 내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선정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망궐례 재현, 다도 체험, 판소리 등

전남 완도군은 7일 문화재청 주관 2020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가 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프로 그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생문화재는 문화재에 담긴 역사 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 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 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 문화재는 완도 청 해진유적(사전 제308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사적 제114호), 완도 객 사(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등이다.

청해진유적은 828년 장보고가 완도 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했 던 곳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 상무역의 요충지였다.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은 정유재란 당시 1598년 2월 고금도에 삼도수군통 제영을 설치하고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곳이며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 정됐다.

완도객사는 1521년 설진된 가리포 진의 객사로 매월 초하루와 보름, 명절



완도 '가리포 야행' 프로그램

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대궐 을 향해 망궐례를 올렸던 곳이다.

가리포진은 1521년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설진된 서남해안의 중요한 수 군진성이었다. 2021년이 되면 가리포 진 설진 500주년을 맞는다.

이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리포 500년 조선 수군과 노닐다' 는 망궐례 재현, 다도 체험, 판소리 배우 기, 음악 콘서트 문화유적 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리포 와! 뻔뻔! FUN FUN! ▲가리포랑 놀자 ▲가리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등 3가 지 주제로 꾸며진다.

/완도(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인천항 연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나서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이용하는 섬주민 및 연안여객의 불편사항을 해 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에 본격 나선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편의제 고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편의시설(주차 장, 대합실) 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 성 검토용역' 수행적격자로 상지건축사 무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연안여객 연 100만 명 시대를 앞두 고 명절, 하계휴가기간 등 특별수송기 간 동안 제기된 주차장, 대합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용 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복합주차 타워 건립을 통한 연안여객터미널 확 장 등 터미널 시설개선을 추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 연말까지 주차 타워 세부 운영계획과 규모, 타당성 등 을 도출할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바탕 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영국 여 객터미널사업팀장은 "쾌적한 여객터 미널 이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백용찬 기자

